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3-22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3-22  
2021 년 03 월 22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284232656](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284232656)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

2021 년 03 월 22 일

# 차례

|                             |   |
|-----------------------------|---|
| 1. [호실적이지만웃을수없다] . . . . .  | 3 |
| 2. [질병에게국경이라도있는가] . . . . . | 3 |
| 3. [이게나라다스브] . . . . .      | 4 |

## 1. [호실적이지만웃을수없다]

코로나 19 가야직도기승인가운데, KBS 가최근수출해운이”32 회연속만선” 대기록을세우며역대급호실적이라는보도를내보냈다. 수출을많이하는것이사실무에그리나쁘겠는가. 이런저런배경을다떼고’수출’이라는단어자체만놓고본다면우리역시이것이굳이나쁜것은아니라는데어뜻을함께한다.

문제는, 굳이오늘단평에추가하지않은수많은뒷면들이다. 뒷면들을하나하나기사를찾아넣자니아무리넣어도끝이없다. 코로나가시작되고나서얼마나많은노동자가다쳤는가. 얼마나많은노동자가죽었는가. 또한얼마나많은대중이생활고에시달리며스스로목숨을끊었는가. 이것들과함께바라본’역대급호실적’수출은그뒷맛이씁쓸하기만하다.

그래서, 호실적인데, 우리의삶도호실적을기록하고있는가? 우리가매월받는돈이두배는올랐는가? 아니다. 그랬으면지금처럼많은사람들이경기부양책으로돈을미친듯이풀어낸데에편승해돈복사기니뭐니하며주식에열중하지도않았을것아닌가. 우리가일해서만들어낸이호실적, 우리가죽어가며만들어낸이호실적은다어디에있는가?

국부國富가늘어좋은가? 그게나랑무슨상관이있다는말인가? 나라가돈을많이벌었으니세금좀줄여주었는가? 이것이수출실적을기록한기업인들에게 물어봐도아니라고절레절레고개를저을말이다.

자본과국가, 이괴물들이우리를죽여가며돈을빼앗아가고있다. 분명열심히 일해서많이생산하고많이내다팔았는데, 나와는상관없는이야기다. 이런허망한일이세상에또어디있다는말인가? 그래서말인데, 호실적쯤거같이나뉘갓든가, 아니면열뽀치니까차라리말잔치라도안하면안될까?

” 수출해운‘32 회연속만선’대기록...역대급‘호실적’”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 2. [질병에게국경이라도있는가]

지난주서울시가외국인노동자들에게코로나 19 검사를강제하는행정명령을내렸다가혐오와차별이라는비판을듣고끝내철회했다. 하지만강원도, 전북, 경북등의지자체에서는여전히검사의무화행정명령이집행되고있다.

질병이인종을가려가며유포하는것이었나? 아니면국적을가려가며유포하는것이었나? 코로나예방책이라는변명조차할수없을것이다. 강제적조치그자체로민중의자유를침해하는것에더하여한국에게주하는이주민에대한명백한배제-분

리정책으로 더욱 문제인 것은 이번과 같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 처음이 아니라란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의 구호책에서부터 이주민들을 배제하는 등 분리적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 또한 의료, 방역으로부터 비교적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주민들의 상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가 자랑해온 'K 방역'이라는 것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실태를 드러낸 또 하나의 사건인 동시에 나라의 지배층의 아직까지 얼마나 외국인 혐오 증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는 모든 이들은 같은 삶의 터전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같은 민중이다. 코로나 검사 강제 조치를 비롯한 이주민에 대한 모든 차별적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방역을 원한다면 이주민들에게도 동등한 의료 서비스로의 접근과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자체’ 외국인노동자 강제 검사 명령’에” 혐오와 차별” 비판 잇따라” :  
<https://www.vop.co.kr/A00001557064.html>

### 3. [이게 나라다 사브]

최근 MBC 외 여러 미디어에서 LH 투기 사건 이후 온갖 비리가 밝혀지고 있다. 단순히 LH 라는 공기업에서 밝혀지는 뇌물, 전관특혜, 투기의혹 비리 뿐만이 아니라 지방의원, 청와대 등 다양한 방면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땅 위에서는 수많은 민중이 이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궁극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무능일까? 아니면 전 정부가 남긴 적폐의 잔재일까? 거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이 둘을 지지하는 현재 지지자들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열심히 싸우고 있을 것이고 이에 실증어난 민중은 이리 물을 것이다. “이게 나라냐 사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회의적인 비아냥에 필자는 ‘이게 나라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막상 알고 보면 단순히 대한민국이나 개발도상국들 외에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조차도 겪고 있으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위 우리가 찬양하는 선진국 유럽에서도 선진국에 ‘걸맞는’ 다른 형태의 착취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생각해 보면 고대 시절부터 나라는 항상 착취 자본인이거나 착취자들의 방망이였다. 민중이 말 그대로 직접 정치를 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없는 한 아무리 잘 돌아가는 의회 민주주의 국가도 결국 착취자의 방망이로서 민중을 후드려 핏 것이다.

이리 말하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민중이 직접 정치를 하려 하면 효용도 떨어지고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엉망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중의 본성은 절대로 단순하게 이기적이고 어리석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취약 계층의 아

이들이 비합리적인 행정 시스템에 의해 굶고 있다고 하니 까당장 자신들의 식당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점 주들이 힘을 모아 아이들에게 거진 무료로 밥을 제공해주겠는가? 어떻게 예부터 잔혹한 외침이 몰아쳐도 이 땅을 민중으로 이루어진 의병이 자발적으로 막아냈겠는가? 그렇기에 누군가가 “이게 나라냐 사브”라고 하면 필자는 이리 대답 하리라.

“이게 나라다. 나라니까 이렇다. 민중에게 나라란 필요 없는 것이다!”

”[단독] 휴가비 3 백·부인 수술비까지...’LH 뇌물장부’ 나왔다” :

<https://youtu.be/mxiSng7RkFI>

”[단독] ‘알박기’ 하고 개발 촉구?...수상한 지방의원들”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7351\\_34936.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7351_34936.html)

”” 아이들 밥, 저도 줄게요”...보도 이후 1 천 개로 늘어난 선한 영향력”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6224](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6224)